

## 최근 터키의 정치적 변화와 그것이 선교에 미칠 영향

Recent Political Changes in Turkey and Its Impact on Missions

---

저자 (Authors)	김성운 Sung Woon Kim
출처 (Source)	<a href="#">Muslim-Christian Encounter</a> 10(1), 2017.03, 61-98(38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a> TORCH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79478">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79478</a>
APA Style	김성운 (2017). 최근 터키의 정치적 변화와 그것이 선교에 미칠 영향. <i>Muslim-Christian Encounter</i> , 10(1), 61-98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20.67.255.\*\*\*  
2021/02/09 (Accessed)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최근 터키의 정치적 변화와 그것이 선교에 미칠 영향

김성운\*

- I. 들어가는 글
- II.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III. 쿠데타에 대한 평가
- IV. 엘도안(Erdoğan)과 정의 발전당(AKP)의 목표는  
터키의 이슬람화인가?
- V. 정치적 변화가 선교에 미칠 영향
- VI. 나가는 글

\*고려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

## I. 들어가는 글

터키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환기에 있다. 작년 2016년 7월 15일 발생한 군사 쿠데타는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실패로 끝이 났지만 그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를 벗어난 터키 대통령 타이프 엘도안(Tayyip Erdoğan)은 쿠데타에 연루된 100명 이상의 군 장성과 군, 경찰, 사법, 교육, 언론, 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수만 명의 반대파 인사를 숙청했고 지금도 반대파 제거를 계속하고 있다. 엘도안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국가의 통치체제를 바꾸어 자신의 정권을 2029년까지 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터키는 1923년 건국이후 지금까지 수상이 정부의 수반이 되어 통치하는 내각제를 유지하여 왔다. 건국부터 1950년까지 터키 건국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Mustafa Kemal)이 창당한 공화민주당(CHP)이 일당독재 형태로 국가를 통치할 때나, 이후 여러 번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도 통치체제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엘도안은 내각제가 아니라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 되어 국가를 통치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대통령제 전환을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쿠데타 이후 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된 정치적 상황을 등에 업고 1월 21일 마침내 집권당인 정의 발전당(AKP)과 민족주의 행동당(MHP)이 연합하여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투표에 내어놓았다. 4월 중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투표에서 이 헌법개정안이 유권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다면 엘도안이 원하는 대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www.kci.go.kr

으로 2029년까지 터키를 통치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서구의 언론과 지도자들은 엘도안의 이런 정치적 행보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쿠데타가 실패한 다음 날부터 서구 언론들은 이번 쿠데타가 엘도안이 반대파를 숙청하고 대통령제로 가기 위해 꾸며낸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일부언론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쿠데타를 구실로 세속주의 국가체제를 전복하려고 역 쿠데타를 도모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였다. 서구 언론과 지도자들이 이런 반응을 내어놓은 것은 이번 쿠데타가 군사 쿠데타라고 보기에는 너무 허술하게 전개되었고, 엘도안을 제거하려는 목적과는 정 반대로 엘도안의 입지와 권력을 더욱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쿠데타를 주동한 실체들이 드러나 이런 의구심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 2029년까지 권력을 연장하게 될 엘도안과 AKP가 터키를 이슬람 국가로 바꾸려하여 터키 세속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만약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와 엘도안이 주도하는 정치적 변화가 터키의 세속주의를 약화시키고 이슬람 근본주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선교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쿠데타 직후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은 국내외 언론보도를 토대로 선교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쿠데타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앞으로의 상황도 동일할 것이라고 선불리 예측할 수 없다.

만약 4월 국민투표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엘도안이 2019년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터키를 근본주의 이

슬람 국가로 변모시키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선교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까? 본 논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터키에서 발생했던 쿠데타와 그로인한 정치 변화가 가까운 미래에 터키사회와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해 보려고 한다. 그렇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앞서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작업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 II.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1. 쿠데타 발생배경

터키에서는 1960년, 1971년, 1980년 그리고 1997년 4차례에 걸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여 정권이 교체된 전례가 있다. 1960년과 1980년은 무력을 동원하여 쿠데타를 일으켰고, 1971년과 1997년은 정부에 통첩하는 형식으로 군부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이번 쿠데타는 불과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경찰과 시민의 힘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터키 역사에서 처음으로 무력을 동원한 군사 쿠데타가 실패로 끝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군인들이 일으킨 쿠데타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다. 군사동원이나 명령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참모총장을 비롯한 삼군의 수뇌부가 끝까지 쿠데타를 반대하였다. 그리고 맨몸으로 나선 시

www.kci.go.kr

민들의 저항에 군인들은 힘없이 포기하고 말았다. 쿠데타에 동원된 군인들은 자신들이 쿠데타에 동원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군인들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쿠데타라고 보기에는 허술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이유로 쿠데타가 발생한 다음날 외신들은 이번 쿠데타가 엘도안이 반대파를 제거하고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쿠데타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엘도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작극은 아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터키 국내에서 야당을 포함해 엘도안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쿠데타를 주도한 그룹의 실체가 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명백하게 들어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쿠데타는 페툴라 굴렌회(*Fethullah Gülen Cemaati*)에 속한 자들이 주도하고 여기에 엘도안의 정치적 행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일부 세속주의 군인들이 가담해서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페툴라 굴렌회는 어떤 단체이기에 엘도안을 제거하고 정권을 전복하려 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페툴라 굴렌회가 어떤 단체이며, 이 단체와 엘도안 정권 사이에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갈등과 충돌이 있어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페툴라 굴렌회는 터키를 대표하는 이슬람 그룹으로 설립자인 페툴라 굴렌(*Fethullah Gülen*)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이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페툴라 굴렌회보다 '*Hizmet*

1 이 단체에 대해서는 김성운, 『형제의 나라 터키 이슬람 들여다보기』(서울: 글마당, 2013), 251-284를 참조하라.

*Grubu'* (봉사 단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 단체의 지도자인 페툴라 굴렌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슬람 사상가 또는 신학자라는 명칭을 즐겨 사용한다. 그는 터키 동부에서 출생해 이맘이었던 부친으로부터 쿠란을 배우고 마드라사에서 정통 이슬람을 공부했다. 그는 또한 당시 터키 수피즘의 대가로부터 수피즘도 전수받았다. 그러나 페툴라 굴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사이드 누르시(Said Nursi)<sup>2</sup>였다. 그는 사이드 누르시에게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누르시의 저작들(*Risale-i Nur*)을 통해 그의 신학과 이슬람 해석을 섭렵하고 그를 자신의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 그래서 페툴라 굴렌회는 이슬람 분파들 가운데 '신 누르쿠'(Neo-Nurcu)로 분류된다. 페툴라 굴렌은 이맘이 된 후에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터키의 서쪽도시 에디르네(*Edirne*), 이즈밀(*Izmir*)에서 설교자로 일했다. 그의 설교는 강렬하고 호소력이 있어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반체제적인 근본주의 이슬람주의자라는 이유로 투옥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그 때마다 위기를 벗어났고 1999년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까지 그곳에서 머물며 활동하고 있다.

페툴라 굴렌회는 이슬람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이슬람 타리카트(*tarikat*)와는 다르다. 타리카트가 외부인에게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이 단체는 외부에 개방적이고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체는 하나의 무슬림 대중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페툴라 굴렌회가 내세운 목표는 터키에 “새로운 세대”(Yeni nesil)를 양성

2 사이드 누르시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지 않고 현대 터키 이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사이드 누르시에 대해서는 Serif Mardin, *Religion and Social Change in Modern Turkey: The Case of Beduzzaman Said Nursi*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9)를 보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세대”라는 것은 쿠란암기를 중심으로 교육받은 옛 세대와 구별되는 무슬림 세대라는 의미이다. 페툴라 굴렌은 이성을 중시하며 종교를 의문시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쿠란 암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으로 이슬람이 유지 될 수 없다는 사이드 누르시의 생각에 동의했다. 페툴라 굴렌은 이슬람이 현대 사회에서 서구에 맞서 영광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두 가지 필수적인 일이 있다고 역설했는데, 그것은 무슬림들의 지적 세계를 현대에 걸맞게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며, 현대에 대응하며 현대의 질문에 이슬람적인 대답을 제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세대”는 이 두 가지를 갖춘 세대를 의미한다.

페툴라 굴렌은 이즈밀의 한 모스크에서 설교자로 일하기 시작한 1966년부터 자신이 설정한 새로운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학사를 운영했다. 그는 학사를 통해 쿠란의 암기와 해석에 기초한 전통적인 방식을 버리고 현대의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교육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을 이슬람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대학으로 진학시켰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1976년 법인을 설립하여 학원과 학교를 세우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고, 1980년대 말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길이 열리자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후 이들의 활동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정부의 지원으로 페툴라 굴렌회는 세계 여러 국가들에 학교와 문화센터 그리고 기업인을 진출시켰다. 한국에도 이들이 세운 국제학교와 문화센터 그리고 한터 경제인 연합회가 활동 중이다.

페툴라 굴렌회는 이렇게 양성된 사람들을 경제계, 법조계, 언

론계, 교육계, 경찰 그리고 군부로 진출 시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 이 단체는 터키 국내에 여러 개의 신문사와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기관,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17개의 대학, 수십 개의 병원, 기업 그리고 수백 개의 초, 중등학교와 학원들 그리고 사립기숙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적인 경제인 연합회와, 언론인 연합회 그리고 학술단체 등을 조직하여 국외에도 상당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 회에 속한 사람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된 적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600만 정도의 터키인들이 이 회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페툴라 굴렌이 터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넓은 지지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슬람과 현대, 이슬람과 민주주의, 이슬람과 자본주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공존할 수 있다고 제시한 그의 이슬람 해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활동을 비롯해 현세에서 무슬림들이 하는 모든 세속적 활동이 알라에 대한 봉사로서 알라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그의 가르침은 터키의 신흥 무슬림 중산층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페툴라 굴렌회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봉사그룹”이라고 부르는 것은 직업을 포함한 모든 일들을 알라와 국가, 인류를 위한 자발적 봉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페툴라 굴렌은 무슬림들의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활동을 신성화시켜 알라를 위한 봉사로 승화시켰다. 이슬람에 대한 이런 해석과 사상으로 인해 서구에서는 페툴라 굴렌의 이슬람 해석을 “이슬람 개신교주의”(Islamic Protestantism) 또는 “이슬람 청교도주의”(Islam Puritanism) 라고 부르기도 한다.<sup>3</sup> 서구가

3 Selcuk Uygur, “Islamic Puritanism” As a Source of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 of The Gülen Movement, “<http://Gülenconferences.com/wp-content/uploads/2014/04/Prd-Uygur-S.pdf>.” (accessed Jan. 10, 2017)

그를 주목하고 그의 활동에 호응을 보내는 것은 페툴라 굴렌이 해석하는 이슬람이 현대 민주주의와 문화적, 종교적 다원주의를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구의 언론과 지도자들은 이번 쿠데타의 주동자들이 페툴라 굴렌주의자들이며 그들의 배후에 굴렌이 있다는 터키 정부의 발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페툴라 굴렌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서구와 이슬람의 미래를 위해서는 엘도안보다 페툴라 굴렌이 더 좋은 파트너라는 생각 때문이다. 엘도안 정권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아쉬운 듯 보이는 서구의 언론에서 우리는 이점을 읽을 수 있다.

엘도안과 페툴라 굴렌회 사이의 출발은 좋았다. 페툴라 굴렌은 엘도안이 AKP를 창당하고 정권을 잡는 과정에 전적인 지지를 보냈다. 페툴라 굴렌회의 지지가 없었다면 창당초기 엘도안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정권을 잡은 엘도안 역시 페툴라 굴렌의 국내외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냈다. 외국에 학교를 세우고, 굴렌회에 속한 기업들과 금융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국가가 나서 지원했다. 이렇게 세워진 학교와 기업들을 통해 페툴라 굴렌은 자신의 입지를 높이면서 이슬람을 전파하고 터키 정부는 국익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관계는 엘도안의 권력이 공고화되면서 점차 균열되기 시작했다. 이슬람 율법학교 출신인 엘도안이 수많은 공립학교를 이슬람 율법학교(*Imam Hatip*)<sup>4</sup>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4 *Imam Hatip* (설교자를 의미하는 아랍어 “*khutba*”로부터 나온 터키어)으로 불리는 중등 교육기관은 터키 건국과 함께 폐쇄된 마드라사를 대신해 국가의 건국이념과 정책에 순응하는 종교인을 양성하기 위해 1949년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슬람주의자들은 이 학교를 세속정부에 의해 피폐해진 이슬람을 재건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이 학교에서 이슬람주의자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은 이슬람 신학교로만 진학하는 것이 아니

세대”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페툴라 굴렌회 학교와 이들 학교 사이에 경쟁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들 사이의 경쟁에는 단순한 학교의 위상과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학교 출신이 터키의 미래를 주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놓여 있었다. 여기에서 엘도안이 쿠르드인과 비판적 성향을 가진 단체들을 탄압하면서 생긴 견해차이로 양자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다.

이러한 갈등은 2012년부터 표면으로 드러나 양자 사이의 충돌로 변했다. 이것은 누가 터키에서 이슬람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하는 싸움이기도 했다. 먼저 행동을 취한 것은 페툴라 굴렌주의자들이었다. 2012년 2월 7일 엘도안이 수술을 받고 있는 동안 페툴라 굴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심어 두었던 검사와 경찰을 동원하여 엘도안의 핵심측근인 국가정보원(MIT)장을 뇌물죄 혐의로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다. 국정원장이 가까스로 체포되는 위기를 벗어나면서 사건은 진정되었지만 엘도안은 검찰과 경찰의 실제적인 목표가 국정원장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 사건 이후 위기를 느낀 엘도안은 페툴라 굴렌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하였다.

엘도안이 일차적으로 행한 것은 페툴라 굴렌회의 핵심 기반인 사설학원을 폐쇄하는 것이었다. 그는 2013년 집권당으로 하여금 사설학원 폐쇄를 위한 법적 준비 작업에 들어가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결정은 페툴라 굴렌에게 있어서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2013년 5월 28일 이스탄불 중심에 있는 게지 공원(Gezi Park)에서 발생

---

라 다양한 분야로 진학했다. 엘도안 역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경제와 경영을 전공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엘도안은 뛰어난 학생들이 세속주의 학문을 가르치는 일반 고등학교보다 이슬람 율법학교에 진학하여 이슬람 교육을 받고 대학으로 진학하도록 하는 것이 터키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집권 후 수백 개의 일반 고등학교를 이슬람 율법학교로 바꾸었다.

한 시위를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하자 굴렌은 이것을 반격의 기회로 삼았다. 그는 평화적인 시위를 무력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진압했다고 엘도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엘도안과 정부를 비난하는 설교를 계속 했다.<sup>5</sup>

그리고 2013년 12월 1일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엘도안의 종교, 교육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비난 내용은 쿠란의 암기와 해석을 가르치는 이슬람 율법학교가 단순한 종교인은 양성할지 모르지만 사회를 주도해 갈 엘리트들을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이슬람 율법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이며 이미 실패한 정치 이슬람을 다시 끌어와 터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이슬람 율법학교 출신인 엘도안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페틀라 굴렌은 또한 서구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엘도안이 그동안 숨겨두었던 정치 이슬람의 옷을 다시 꺼내 입고 유럽으로 행한 터키의 발걸음을 이슬람 국가들로 되돌리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터키 내에서 5% 밖에 되지 않은 이슬람주의자들이 자신의 이념을 모든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불평하였다. 엘도안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자신들의 활동기반인 사설학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페틀라 굴렌회는 언론을 동원하여 엘도안과 터키 정부를 공격하는데 그치지 않고, 엘도안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국가의 주요 기관에 배치해 두었던 사람들을 동원하여 실력행사에 나섰다. 터키에서 12월 17일 “사법 쿠데타”로 알려진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5 <http://fGülen.com/tr/turk-basininda-fethullah-Gülen/fethullah-Gülen-hakkında-haberler/fethullah-Gülen-hakkında-2013-haberleri/35867-zaman-fethullah-Gülen-hocaefendi-den-gezi-parki-olaylariyla-ilgili-onemli-tespitler>. (accessed Jan. 5, 2017)

2013년 12월 17일 중앙수사부 검사 켈랄 카라(Celal Kara)는 정부의 4개부서 장관과 그들의 3자녀 그리고 사업가와 은행지점장, 관료를 포함한 일군의 인사들을 직권남용과 부정부패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곧장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들은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이들 중에는 엘도안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엘도안과 법무장관의 개입으로 이들은 구속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엘도안의 측근인 4명의 장관이 사퇴하고, 페툴라 굴렌측에 속한 8명의 여당 국회의원이 이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엘도안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국가정보원장의 체포시도에 이어 사법기관을 동원해 엘도안을 무너뜨리기 위한 두 번째 시도가 일어난 것이었다.<sup>6</sup> 이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던 2014년 1월 20일 페툴라 굴렌은 *Wall Street Journal* 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 동안 엘도안과 AKP가 터키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sup>7</sup>

2014년 2월 23일 마침내 터키국회는 2015년 8월 31일자로 모든 사설학원을 폐쇄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정에 2015년 8월 말 모든 사설학원이 폐쇄되었다. 페툴라 굴렌의 핵심기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2014년 국회는 또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국민이 투표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8월 28일 엘도안은 터키 역사상 최초의 직선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명목상 국가를 대표하던 이전 대통령들과는 달리 실제적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된 것이다. 엘도안은 대통령으로 취임 후 곧장 국가의 정치체제

6 <http://www.sabah.com.tr/gundem/2016/12/17/17-aralik-fetonun-yargiya-darbe-girisimi>. (accessed on Jan. 10, 2017)

7 <https://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702304027204579332670740491570>. (accessed on Jan. 10, 2017)

를 의회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엘도안이 실제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굴렌주의자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먼저 그에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페툴라 굴렌회 언론사들을 폐쇄시켰고, 이어서 페툴라 굴렌회가 운영하던 아시아 은행(Bank ASYA)을 파산시켰다. 이어서 사법부, 경찰, 행정부 등 국가기관에서 페툴라 굴렌주의자들을 축출하고 마지막으로 군부 내의 페툴라 굴렌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최고위원회가 2016년 8월 1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 내의 페툴라 굴렌주의자들이 엘도안이 휴가를 이유로 수도를 비운 것을 기회로 삼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군부에서 축출된 페툴라 굴렌측 인사들로 인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지만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번 쿠데타는 터키 이슬람을 대표하는 두 그룹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엘도안과 페툴라 굴렌간의 충돌의 배후에는 터키 건국 이후 낙쉬벤디/누르쿠 타리카트 사이에 있어왔던 주도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낙쉬벤디 타리카트(*Naksibend tarikat*)와 누르쿠 타리카트(*Nurcu tarikat*)는 터키에서 세속주의를 몰아내어야 한다는 것에는 생각을 같이 했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은 달랐다.<sup>8</sup> 페툴라 굴렌이 속한 누르쿠 타리카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세대”를 양성함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비해 엘도안은 ‘규무쉬하네비’라는 낙쉬벤디 타리카트 분파의 영향을 받았다. 이 분파는 60년대 이후 터키 정치이슬

8 터키를 대표하는 이 두 타리카트에 대해서는 김성운, 『형제의 나라 터키 이슬람 들여다보기』 119-153을 참조하라.

람을 대표하는 네즈메틴 엘바칸(Nezmettin Erbakan)과 1980년 쿠데타 이후 모국당(ANAP)을 창당하여 수상과 대통령을 지냈던 투르구트 오잘(Turgut Ozal)과 엘도안을 배출하였다. 이 타리카트는 세속주의 케말리즘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슬람 율법학교에서 쿠란을 공부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힘을 키우고 정치활동에 참여해서 세속주의자들의 힘을 약화시켜야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엘도안은 자신이 권력을 잡자 수백 개의 공립 고등학교를 이슬람 율법학교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이번 쿠데타는 외부적으로는 군인들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는 이전에 있었던 4차례의 군사 쿠데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쿠데타가 실패한 원인과 결과

쿠데타가 단기간에 진압된 원인은 간단해 보인다. 쿠데타가 국민들과 정당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와 군부로부터 아무런 지지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 지도부가 볼 때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어떤 이유나 명분도 없었다. 사회는 안정되어 있었고, 정쟁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은 물론이고 경제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엘도안과 AKP 정권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의 강압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군 지도부는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았다.

정당들 역시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이 전투기를 동원하여 국회의사당을 포격하는 와중에도 한 목소리로 쿠데타를 규탄하고 저항했다. 여기에는 엘도안의 정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들도 예

외가 아니었다. 세속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엘도안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제1야당과 쿠르드 자치와 권리문제를 두고 엘도안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쿠르드계 정당도 쿠데타에 대해서만 큼은 엘도안을 지지했다. 쿠데타가 엘도안과 그가 추진하던 대통령제 개헌보다 터키 민주주의와 자신들에 더욱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데타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은 국민들이었다. 쿠데타 세력이 터키 공영방송국을 점령하고 쿠데타가 성공했으니 외출을 금지하고 자신들이 내리는 지침을 따르라고 명령했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엘도안이 비행기에서 한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국민들이 쿠데타에 맞서 줄 것을 호소하자 수십만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맨 몸으로 쿠데타군에 저항했다.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한 쿠데타 시도는 결국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쿠데타는 하루 만에 끝이 났지만 그 영향과 결과는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관심사는 실패한 쿠데타로 인해 발생할 정치와 선교의 변화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이 터키에 미칠 파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 이상의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결과들만 간략히 언급하고자한다.

이번 쿠데타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결과는 페툴라 굴렌회의 몰락이다. 지난 50년 동안 국가의 주요기관 내에 구축해 두었던 인맥들이 숙청을 당했고, 쌓아 올렸던 모든 사회적, 경제적 기반들이 무너졌다. 무엇보다도 큰 손실은 그동안 페툴라 굴렌의 이슬람 해석과 이 그룹에 지지를 보내었던 다수의 터키국민이 등을 돌렸다

는 사실이다. 페툴라 굴렌회가 학원과 사립학교들을 통해 양성해 온 “새로운 세대”가 당장 소멸하지는 않겠지만 이들이 다시 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군부의 약화이다. 터키 역사에서 처음으로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가 실패했다. 이번 쿠데타를 빌미로 정부는 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엘도안과 집권당은 군부가 주도하던 국가안보위를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통제 아래에 두고 위원회 내에서 군인들의 수를 대폭 축소하여 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한편에서 보면 터키민주주의가 진일보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건국 이후 터키 세속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며 이슬람주의자들을 견제해 온 세력이 힘을 잃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쿠데타는 엘도안의 카리스마와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았다. 엘도안과 집권당은 여세를 몰아 쿠데타를 빌미로 자신을 반대해온 사람들까지도 대규모로 숙청하고, 대통령제 개헌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2029년까지 집권을 연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둔 상태에 있다. 이런 결과들은 터키민주주의의 장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전망하게 한다.

### Ⅲ. 쿠데타에 대한 평가

이번 쿠데타를 바라보는 국내 시각과 국외의 시각은 서로 엇갈린다. 서방의 언론과 정치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은 이

www.kci.go.kr

번 사건은 엘도안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작극일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다. 미국의 *Fox News*는 쿠데타가 발생한 다음 날인 7월 16일 랄프 피터스(Ralph Peters)의 이름으로 낸 기사의 제목을 “터키의 마지막 희망이 죽고 있다”(Turkey’s Last Hope Dies)라고 달았다.<sup>9</sup> 엘도안이 주도하는 터키의 이슬람화를 저지하기 위한 쿠데타가 실패함으로 터키의 미래가 어두워졌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였다. BBC 방송은 7월 21일 터키 쿠데타를 분석하는 기사를 올리면서 그 제목을 “레제프 타이프 엘도안: 터키의 무지막지한 대통령”(Recep Tayyip Erdogan: Turkey’s ruthless president)으로 잡았다. 이 제목은 며칠 후 “Recep Tayyip Erdogan: Turkey’s dominant president”으로 변경되었지만 엘도안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sup>10</sup> *Foreign Policy* 역시 7월 17일 “엘도안은 쿠데타가 아니라 자신을 비난해야한다”(Erdogan Has Nobody to Blame for the Coup but Himself)<sup>11</sup> 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쿠데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터키를 이슬람화기 위해 강압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엘도안에게 있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다. *The Guardian* 역시 7월 21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쿠데타인가 역 쿠데타인가?”(The Guardian view on the week in Turkey: coup – and counter-coup?)<sup>12</sup> 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이 기사는 터키의 쿠데타가 민주주의와 세속적 가치를 제거하고 이슬람 가치와 체제를 정착시키려는 엘도안의 조작극이

9 <http://www.foxnews.com/opinion/2016/07/16/turkeys-last-hope-dies.html>, (accessed on Jan. 10, 2017).

10 <http://www.bbc.com/news/world-europe-13746679>, (accessed on Jan. 10, 2017).

11 <http://foreignpolicy.com/2016/07/15/Erdogan-has-nobody-to-blame-for-the-coup-but-himself/>, (accessed on Jan. 10, 2017).

12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6/jul/21/the-guardian-view-on-the-week-in-turkey-coup-and-counter-coup>, (accessed on Jan. 10, 2017).

아닐까 하는 의구심과 염려를 표명하고 있다. 쿠데타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쿠데타와 엘도안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의 언론들 역시 서방의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거의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다.

서구는 엘도안 집권 이후 항상 그에 대한 의구심과 견제를 늦추지 않았다. 그것은 엘도안이 정치이슬람 출신이라는 것과 신 오스만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이다. 그는 2003년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세속주의 케말리즘 아래 눌러있던 이슬람의 가치와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그러한 정책은 보수적인 터키 무슬림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 서구의 관점에서 볼 때 터키의 이슬람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신 오스만주의를 표방하며 이슬람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중동에서 터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서구에게는 달가운 일이라 할 수 없다.

엘도안과는 대조적으로 페툴라 굴렌은 서구인들에게 자신이 해석한 이슬람이 서구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종교적, 문화적 다원주의와 공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왔다. 교황과 정교회 수장을 만났고 정치 지도자들과도 교류를 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설명하였다. 이슬람에 대한 해석을 담은 그의 책이 한글로도 번역될 만큼 페툴라 굴렌은 현대적인 이슬람 사상가로 명성을 얻었다.<sup>13</sup> 이슬람 근본주의의 대안을 찾고 있던 서구인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등장한 것이었다. 그가 서구에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 지난 20년 동안 발표된 그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이슬람 해석과 관련된 수많은 논문과 책들은 서구가 그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서구가 가지고 있는 엘도안에 대

13 페툴라 굴렌, 김현철역, 『이슬람에 대한 질문들』(서울, 민미디어, 2001).

한 의구심과 페툴라 굴렌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생각하면 서구의 언론이 실패한 테러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 이상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반대로 터키 내부에서는 쿠데타의 주체가 페툴라 굴렌회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터키인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터키인이라면 누구나 페툴라 굴렌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인이라면 누구나 페툴라 굴렌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들을 국가 주요 기관들에 진출시켜 놓았으며, 자신의 사람들을 공공기관에 진출시키기 위해 임용, 공채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조작했다는 것 그리고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단체를 움직이는 핵심인물들이 누구인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이 단체는 쿠데타가 발생하기 3년 전부터 사법계에 심어두었던 사람들과 언론을 동원하여 엘도안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움을 벌여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터키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만일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페툴라 굴렌회가 자신들에게 이슬람 원리주의를 강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테러가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페툴라 굴렌의 이슬람 해석과 쿠데타가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놓고 볼 때 이번 쿠데타가 터키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터키를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샤리아에 의해 통치되는 이슬람국가로 변모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배후가 페툴라 굴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터키국민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서구의 반응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앞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서구의 반응과 페툴라 굴렌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국의 태도를 터키국민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터키국민들은 분명한 증거가 없지만 이번 쿠데타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엘도안과 터키국민들은 페툴라 굴렌이 미국의 보호 아래서 활동하고 있는 한 쿠데타의 위협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쿠데타 이후 서구에 대한 터키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극우 민족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미국이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에 산재해 있는 쿠르드 그룹을 결집하여 쿠르드 국가를 세우려고 한다고 염려하고 있다.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엘도안은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극우 민족주의 행동당(MHP)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 대통령제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쿠데타에 대한 미국과 서구의 기본적인 시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서구에 대한 터키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그에 비례해서 엘도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IV. 엘도안과 AKP의 목표는 터키의 이슬람화인가?

서구의 언론과 정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엘도안의 목표가 터키를 이슬람 근본주의로 변화시키는 것일까? 그것을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로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도 중요하

www.kci.go.kr

다. 터키의 현재 정치상황을 보면 세속주의 수호자 역할을 했던 군부는 엘도안의 통제 아래 들어갔고, 엘도안 정권을 견제하고 대안이 될 만한 야당이 없으며,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되면 엘도안에게 권력이 집중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엘도안과 AKP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그러한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인다. 서구의 정치지도자들과 언론이 엘도안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펴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을 보면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 1. 엘도안과 AKP가 걸어온 정치적 행보

엘도안과 그의 정치적 동료들은 2011년 터키어로 3 “Y”, *yolsuzluk*(부패), *yasaklar*(금지), *yoksulluk*(가난)과의 싸움을 정치적이념으로 내걸고 AKP를 창당했다. 중도적 진보와 보수적 성향을 가진 국민들과 경제계의 전적인 지지를 받은 AKP는 창당 이듬해 정권을 잡았고 이후 엘도안은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3연속으로 집권하는데 성공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 그리고 민주화라는 터키국민들의 세 가지 염원을 성공적으로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4년 터키 역사상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첫 대통령이 되었다. 엘도안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헌법을 바꾸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엘도안과 AKP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려면 지난 15년 동안 엘도안과 AKP가 걸어온 정치적 행보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정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엘도안을 이슬람주의자로 분류한다.

www.kci.go.kr

장지향(Ji-Hyang Jang)과 피터 리(Peter Lee)는 정치 이슬람을 “극단주의”, “근본주의”, “온건주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엘도안과 AKP가 온건한(moderate) 그룹에 속한 것으로 규정한다.<sup>14</sup> 그러나 이들은 그룹을 규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엘도안이 샤리아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고 세속주의 국가 틀 속에서 이슬람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온건주의자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비해 다니엘 브룸버그(Daniel Brumberg)는 이슬람주의자를 “급진적/공격적 근본주의자”(radical/militant fundamentalists), “개혁적 근본주의자/전략적 현대주의자”(reformist fundamentalists/tactical modernists), “전략적 현대주의자/이슬람적 자유주의자”(tactical modernists/islamic liberalism)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다. 브룸버그에 의하면 “급진적 근본주의자”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가의 체제를 샤리아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자들이다. 이슬람혁명으로 이란에서 정권을 잡은 호메이니, 탈레반, 엘 카에다, 헤지블라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개혁적 근본주의자” 유형은 국가를 샤리아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급진적 근본주의자와 동일하지만 무력 대신 정치적 방법을 택한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무력 대신 정치의 틀 안에서 합법적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고 국가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한다. 이들은 정권을 잡을 때까지 자신들의 숨은 목표를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는다. 이 부류에는 터키 복지당(RP)의 당수로 수상까지 지냈다가 쿠데타로 물러난 엘바칸(Ebakan)과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당이 속한다. 여기에 비해서 “이슬람적 자유주의자”는 앞의 두 그룹과는 목표가

14 Ji-Hyang Jang & Peter Lee, “The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Political Islam: From AKP to ISIS,”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7, no.2, (2014).

다르다. 이들은 세속주의 국가체제와 함께 하면서 무슬림들의 종교적 자유를 확대하려고 시도한다.<sup>15</sup>

브룸버그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하면 엘도안과 AKP는 분명히 첫 번째 부류는 아니다. 창당 이념, 정치적 슬로건,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적 행보를 보면 세 번째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최근 엘도안과 AKP를 두 번째 그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서구의 언론이나 터키 내 세속주의자들이 볼 때 엘도안은 무스타파 케말이 건국한 세속주의 체제를 샤리아에 기초한 이슬람 국가로 변모시키려는 정치 이슬람주의자이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숨은 목표를 감추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엘도안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가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복지당(RP)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은 항상 있어 왔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이슬람주의자들은 엘도안이 너무 세속적이라고 불평을 한다. 엘도안과 AKP는 터키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불균형에 관심이 없고, 세속주의자들과 손잡고 이슬람의 원리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무슬림들의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터키 국민들에게 질문해 보면 엘도안은 이슬람의 전통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터키를 이슬람과 서구의 가치를 조화시키려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상과 대통령으로서 엘도안이 걸어온 길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슬람적 자유주의자”이다. 그러나 최근

15 Daniel Brumberg, “Rhetoric and Strategy: Islamic Movements in the Middle East,” in M. Kramer ed., *The Islamism Debate* (Moshe Dayan Center for Middle Eastern and African Studies, Tel Aviv, 1997).

엘도안은 “이슬람적 자유주의자”에서 “개혁적 근본주의자”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자유적인 정책을 취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슬람 가치에 무게를 두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권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도안과 AKP는 여전히 “이슬람 자유주의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몸으로 쿠데타를 저지하고 엘도안을 지지하는 것은 그가 터키에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고, 이슬람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조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2. 엘도안과 AKP가 추진하는 개정헌법의 주요내용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글을 쓰고 있는 1월 21일 AKP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 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민투표에 붙여졌다. 4월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는다면 엘도안과 AKP가 원하는 대로 헌법이 개정되고, 2019년 3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지게 될 것이다. 터키의 야당들과 서구의 언론들은 개정된 헌법에 따라 엘도안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터키를 근본주의 이슬람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알려면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서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국가의 체제와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만 살펴볼 것이다.

헌법개정안에는 터키의 국가체제를 규정하는 터키 헌법 1항 1조와 2조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sup>16</sup> 이번 헌법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16 터키 헌법 1조는 “터키는 공화국이다.”고 명시하고 있고, 2조 “터키는 민주적, 세속주의적(정교분리), 사회적, 법치 국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에서 선출한 수상이 내각을 구성하여 통치하는 내각제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가 되어 통치하는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다. 대통령은 5년 임기제로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엘도안은 2019년에 있을 대통령에 당선되어 2029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

대통령 선출 방식은 한국과 상당히 다르다.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직전 선거에서 투표자 5%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 소속이거나 유권자 10만 명이상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대통령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며, 일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한 두 후보를 두고 2주후 2차 투표를 실시한다. 만일 후보자 가운데 한명이 사퇴할 경우 남은 후보를 두고 찬반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 만일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다시 재선거를 하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한국과 유사하다. 대통령은 국가 통수권자로 장관과 고위관직 임명권, 군부통수권,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의 비준 거부권을 갖는다. 대통령은 한 정당에 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한다. 국회는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대통령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고, 조사권이 발동되면 한 달 이내에 조사활동을 마치고 비밀투표에 부쳐 3/5의 찬성을 얻을 경우 국회의원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서 추천한 15인으로 청문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소위원회는 두달 이내에 청문회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비밀투표에 부쳐 2/3 이상 찬성하면 탄핵을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재소한다. 헌법재판소는 최대 6개월 이내에 탄핵의 유무를 결정해야한다.<sup>17</sup>

17 <http://www.aljazeera.com.tr/haber/anyasa-teklifinin-tam-metni>, (accessed on Jan. 10, 2017).

국민들이 헌법개정안을 찬성하면 엘도안에게는 2029년까지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지만 결과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엘도안이 2014년 선거에서 51.65%의 득표로 대통령에 선출된 것을 감안하면, 엘도안의 권력 연장과 강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쿠데타로 인해 엘도안의 인기와 정치적 입지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앞에는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남아 있다. 인구의 15%에 달하는 쿠르드인들이 엘도안의 강압적인 정치로 극도의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제1 야당인 공화국민당(CHP)이 헌법개정안이 터키에서 세속주의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세속주의자들을 결집하고 있고, 모든 이권을 빼앗기고 수면 아래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페툴라 굴렌회의 보이지 않는 반대를 생각하면 헌법개정안의 통과가 낙관적이지 않아 보인다.

### 3. 국민들이 엘도안을 지지하는 동력의 약화

엘도안이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헌법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엘도안이 이번 쿠데타를 이겨낸 것은 다수의 국민들이 그를 열렬하게 지지하기 때문이다. 엘도안이 정권을 잡은 이후 지금까지 이슬람주의자라는 비난과 의심을 받으면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안정, 사회적 안정,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었기 때문이다.

터키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끊임없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을 겪었다. 이 기간 동안 집권한 정부의 수명은 평균 2년을 넘지 못했고,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의 테러, 이슬람주의자들과 세속주의자들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그리고 대규모의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제위기로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다. 그러나 엘도안이 집권한 14년 동안 정치적 안정과 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집권당시 2500\$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을 넘어섰다. 또한 80-90년대 극성을 부렸던 쿠르드 분리주의 단체들의 테러와 세속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 사이의 충돌도 급격하게 감소했다. 국민들은 엘도안과 AKP가 이슬람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엘도안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던 이러한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아직까지 정치적 안정은 유지하고 있지만, 쿠르드분리주의자들과 IS에 의한 테러 그리고 시리아에서 유입된 대규모 난민들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엘도안의 치적이라 여겨지던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엘도안 집권 이후 매년 8% 이상 성장세를 보여 왔던 경제가 2015년 4%로 낮아지더니, 2016년 4분기에는 -1.8%로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터키의 경제성장이 2018까지 2.3%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문제는 터키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터키 리라가 지난해 달러대비 17%나 하락했다. 터키화의 하락폭은 신흥국 가운데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큰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물가도 전년대비 8.5%나 상승했다. 터키중앙은행은 자국화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1월 중순 이자율을 10%까지 올렸지만, 1월 27일 Fitch, Moody's 그리고 S&P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모두 터키를 투자 위험국으로 평가함으로

서 터키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터키가 국제신용기관 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은 199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터키 수상 비날리 옐드림(Bilali Yildirim)은 국민들에게 여름이 되면 경제가 호전될 것이니 인내하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 터키에 최악의 상황은 닥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옐도안과 정부가 4월 국민투표에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경제적 어려움이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상황과 테러와 시리아 난민으로 인한 사회불안 그리고 유럽과의 마찰 등으로 인한 문제들은 옐도안의 지지기반을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설령 옐도안이 감추어둔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국민들로부터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 4. 터키국민의 종교적 성향

터키국민들의 종교적 성향을 볼 때 터키를 근본주의 이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2017년 1월 1일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IS 테러로 인해 39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작년 한 해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 터키 국민의 절대다수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거부한다. 대부분의 터키국민은 자신이 무슬림이고 이슬람의 가치가 존중받고 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하고 표현하기를 원하지만 근본주의 이슬람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2016년 4월에 발표된 PEW 보고서에 의하면, 터키국민 가운데

www.kci.go.kr

국가의 법이 샤리아에 따라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13%이며, 절대 안 된다고 대답한 사람이 36%, 이슬람의 가치와 원리들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샤리아에 따라 통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한 사람이 38%였다. 이 보고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샤리아에 의한 통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2012년 PEW의 보고서는 민주주의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터키인의 비율이 2011년 66%에서 2012년 71%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sup>19</sup> 이런 결과는 터키국민이 이슬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터키국민은 이슬람을 수용할 때부터 근본주의 이슬람이 아니라 해석에 개방된 유연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중동이나 이란의 무슬림들과는 달리 현대의 가치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었다. 근본주의 이슬람은 지난 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터키인들의 이슬람 이해와 맞지 않다.

최근 한 학부모가 자녀의 종교교육 문제로 학교를 고소한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은 터키인들의 종교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아직 미성년인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이슬람 수업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학교당국을 고소했다. 이 문제를 다룬 법원은 학부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종교교육은 부모의 책임과 권한에 있으므로 학생의 보호자인 부모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sup>20</sup> 종교교육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고소한 학부모도 재판을 한 판사도 무슬림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터키인들의 이슬람 이해와 종교적인 성향을 누구보다

18 <http://www.pewglobal.org/2016/04/27/the-divide-over-islam-and-national-laws-in-the-muslim-world>, (accessed on Jan, 15, 2017).

19 <http://www.pewglobal.org/2012/07/10/most-muslims-want-democracy-personal-freedoms-and-islam-in-political-life>, (accessed on Jan, 15, 2017)

20 <http://www.hurriyet.com.tr/din-dersine-katilmamak-tabii-hak-40342068>, (accessed on Jan, 20, 2017)

잘 알고 있는 엘도안이 터키를 근본주의 이슬람으로 바꾸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 V. 정치적 변화가 선교에 미칠 영향

필자는 2014년 “현대 이슬람 세계에서 터키 이슬람이 가지는 역할”이라는 글에서 엘도안이 집권하는 동안 터키 교회가 법적 지위를 얻고 공권력이 공공연히 교회에 압력을 가하는 일이 거의 사라지는 등 터키교회와 선교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힌바 있다.<sup>21</sup> 쿠데타로 인한 터키의 정치적 변화가 이러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정치적 변화에 대한 예측과 쿠데타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터키교회가 겪은 상황을 살펴보면 선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최근 터키교회지도자회(TEK)가 발표한 2016년 상황보고서에 의하면 쿠데타 이후 교회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공권력개입이 증가했거나 교회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없다.<sup>22</sup> 일부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추방령이 내려지고 한 미국 선교사가 페틀라 굴렌회를

21 김성운, “적변하는 현대 이슬람 세계에서 터키 이슬람이 가지는 역할,”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7, no.2, (2014).

22 Association of Protestant Church, “2016 Human Rights Violations Report,” 터키 개신교 협의회는 매년 개신교회와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종합해 보고서를 발행한다. 이 보고서는 회원들에게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그 외에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치적 박해나 언론을 통한 사회적 압박 같은 특이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엘도안과 현 정권의 관심이 쿠데타 잔존세력을 청산하고 대통령제 개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집권 이후 엘도안이 터키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 취해왔던 정책을 바꿀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터키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슬람과 비교할 때 그 수준은 미미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거나 종교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엘도안이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2.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

엘도안이 2029년까지 집권하더라도 종교적 소수에게 취해온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엘도안이 걸어온 길은 그가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아니라 ‘이슬람적 다원주의자’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엘도안이 걸어온 길은 또한 이슬람이 주도하면서 다른 종교와 인종, 문화를 포용한다는 ‘신 오스만주의’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한다. 이것은 세속주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의 모델을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 터키를 건국한 사람들이 수용한 세속주의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만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프랑스식 모델이었다. 터키는 이 모델에 따라 국가가 개인의 복장

에서부터 성직자 양성에 이르기까지 무슬림들의 일상적인 종교생활에 관여해 왔다. 엘도안은 집권 초기부터 이런 세속주의 모델이 터키의 현실과 민주주의의 원리와의 맞지 않다고 불평해 왔다. 그는 터키의 세속주의가 무슬림들과 세속주의자들 모두가 양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영국이나 미국식의 앵글로색슨적인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슬림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터키에서 앵글로색슨적인 세속주의 모델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슬람 근본주의로 가는 문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엘도안이 주장하는 것은 탄지마트(Tanzimat)개혁이후 지난 180년 동안 터키가 걸어온 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쿠데타 이후 정치적 변환기에 접어들었지만 엘도안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여길 만한 이유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도 그러한 변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서 고려해 본다면 터키의 정치적 변화가 당장 선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번 정치적 변화가 선교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엘도안보다 서구 언론과 정치 지도자들이 보인 쿠데타에 대한 반응이나 중동정책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것들이 터키인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지난 몇 년 동안 잠잠했던 교회와 선교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터키교회와 선교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거세어져 선교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 Ⅵ. 나가는 글

역사에 ‘만약의 수’는 없지만 만약 쿠데타가 성공해서 페툴라 굴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다면 터키의 현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전의 군부 쿠데타처럼 눈엣가시였던 엘도안을 제거하는데 만족하고 정권을 정당들에게 넘겨주었을까? 아니면 지난 40여 년 동안 치밀하게 양성해 왔던 “새로운 세대”를 통해 터키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페툴라 굴렌이 만들려고 생각했던 터키의 모습은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필자는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터키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고, 선교 역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쿠데타를 극복한 엘도안이 더 강력해진 자신의 권력을 토대로 헌법을 개정하여 2029년까지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지만, 정권연장을 통해 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터키의 국가체제를 이슬람 근본주의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14년 동안 엘도안이 걸어 온 길은 샤리아에 의해 통치되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의 가치와 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존을 추구하는 ‘이슬람적 다원주의’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맨몸으로 쿠데타에 저항하며 엘도안을 지지한 것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것을 엘도안이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쿠데타로 인해 야기된 정치적, 사회적 긴장과 불안이 일시적으로 선교를 위축시키겠지만, 터키선교의 틀이나 방향이 바뀔만한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 참고문헌

- 김성운. 『형제의 나라 터키 이슬람 들여다보기』. 서울: 글마당, 2013.
- \_\_\_\_\_. “격변하는 현대 이슬람 세계에서 터키 이슬람이 가지는 역할”,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7, no.2, (Dec. 2014):31-62.
- 페툴라 굴렌. 김현철 역. 『이슬람에 대한 질문들』. 서울: 민미디어, 2001.
- Brumberg, Daniel. “Rhetoric and Strategy: Islamic Movements in the Middle East,” in M. Kramer ed., *The Islamism Debate*. Moshe Dayan Center for Middle Eastern and African Studies: Tel Aviv, 1997.
- Fethullah Gülen. “Fethullah Gülen Hocaefendi’ den Gezi Park i olaylar i yla ilgili önemli tespitler.” <http://fGülen.com/tr/turk-basininda-fethullah-Gülen/fethullah-Gülen-hakkinda-haberler/fethullah-Gülen-hakkinda-2013-haberleri/35867-zaman-fethullah-Gülen-hocaefendi-den-gezi-parki-olaylariyla-ilgili-onemli-tespitler>, (accessed on Jan. 5, 2017).
- Ji-Hyang Jang & Peter Lee. “The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Political Islam: From AKP to ISIS,”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7, no,2, (Dec. 2014): 135-154.
- Mardin, Serif. *Religion and Social Change in Modern Turkey: The Case of Beduzzaman Said Nursi*.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9.

Peters, Ralph. “Turkey’s last hope dies.” <http://www.foxnews.com/opinion/2016/07/16/turkeys-last-hope-dies.html>, (accessed on Jan. 10, 2017).

Uygur, Selcuk. ““Islamic Puritanism” as A Source of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 of the Gülen Movement.” <http://Gülenconferences.com/wp-content/uploads/2014/04/Prd-Uygur-S.pdf>, (accessed on Jan. 10, 2017).

ALJAZEERA TURK. “Anayasa teklifinin tam metni.” <http://www.aljazeera.com.tr/haber/anayasa-teklifinin-tam-metni>, (accessed on Jan. 17, 2017).

BBC News. “Recep Tayyip Erdogan: Turkey’s dominant president.” <http://www.bbc.com/news/world-europe-13746679>, (accessed on Jan. 10, 2017).

FP. “Erdogan Has Nobody to Blame for the Coup but Himself.” <http://foreignpolicy.com/2016/07/15/Erdogan-has-nobody-to-blame-for-the-coup-but-himself/>, (accessed on Jan. 10, 2017).

Hurriyet. “Din dersine katılmamak tabii hak.” <http://www.hurriyet.com.tr/din-dersine-katilmamak-tabii-hak-40342068>. (accessed on Jan. 20, 2017).

Pew Research Center. “Most Muslims Want Democracy, Personal Freedom, and Islam in Political Life.” <http://www.pewglobal.org/2012/07/10/most-muslims-want-democracy-personal-freedoms-and-islam-in-political>

www.kci.go.kr

-life. (accessed on Jan, 15, 2017).

\_\_\_\_\_. "The Divide Over Islam and National Laws in the Muslim World." <http://www.pewglobal.org/2016/04/27/the-divide-over-islam-and-national-laws-in-the-muslim-world>. (accessed on Jan, 15, 2017).

SABAH. "17 Aral i k: "FETÖ'nün yarg i ya darbe giriřimi." <http://www.sabah.com.tr/gundem/2016/12/17/17-arlik-fetonun-yargiya-darbe-girisimi>, (accessed on Jan, 10, 2017).

*The Guardian*, "The Guardian view on the week in Turkey: coup-and counter-coup?."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6/jul/21/the-guardian-view-on-the-week-in-turkey-coup-and-counter-coup>, (accessed on Jan, 10, 2017).

THE WALL STREET JOURNAL, "From His Refuge in the Poconos, Reclusive Imam Fethullah Gülen Roils Turkey." <https://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702304027204579332670740491570>, (accessed on Jan, 10, 2017).

Association of Protestant Church, "2016 Human Rights Violations Report." 미공개.

## ■ ABSTRACT

## Recent Political Changes in Turkey and Its Impact on Missions

Sung Woon Kim

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claim that in the future Turkey will transmute itself into a fundamentalist Islamic country that makes missionary work become difficult in the country. In order to forecast this scenario, the paper examines a series of events that occurred in the past six months in the country since the failed *coup d'état* on July 15–16th, 2016. The military *coup* could be seen as a power struggle between the two main Islamist groups in Turkey: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Adalet ve Kalkınma Partisi*, AKP) and *Fetullah Gülen Cemaati* because each one revolves around Prime Minister Tayyip Erdoğan and Fetullah Gülen respectively. Since the military rebellion was decisively reduced to a stump, Erdoğan's popularity surged, giving him opportunity to change the laws of the constitution to extend his presidency until 2029, and to transform the Turkish government from its

www.kci.go.kr

current secular system into a Sharia-based Islamic nation. Based on various observations, current political changes may temporarily bolster Erdoğan and AKP's power. On the other hand, ongoing armed conflicts against various Kurdish insurgent groups, Syrian civil war, and the complex relationship with the European Union are all powerful mechanisms that can favor *Fetullah Gülen Cemaati* and undermine the legitimacy of Erdoğan's power. Hence it is conjectured that social tensions and worries may hinder the missional activities in Turkey for a while, but they will not be detrimental enough to warrant a change of trajectory of missions to Turkey under the current framework.

**Keywords:** Turkey, Mission, Tayyip Erdoğan, Fetullah Gülen